

## 앵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남바린 앵흐바야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위해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몽골 건국 8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에 첫 국민으로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를 경영했던 칭기즈 칸 시대의 영광이 오늘의 몽골 부흥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미 몽골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께서 직접 수립한 '2021 국가발전 전략계획'을 토대로 몽골이 '한 가리드'처럼 더 힘차게 도약할 것으로 믿으며, 각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선린우호협력 동반자'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역과 투자 확대, 자원협력, 사회간접자

본과 IT 분야 발전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두 나라는 정치·외교·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이미 각하께서 한국을 네 차례나 방문할 만큼 매우 활발합니다.

인종과 언어, 음식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가 앞으로 더욱 빠르고 넓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몽골의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